

## 여군의 군생활 경험과 적응 과정 -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

김 재 은

서울시청 힐링센터 / 센터장

김 지 현†

홍익대학교 /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여군의 군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그들의 경험과 적응 과정을 실질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군 12명을 3그룹으로 나누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였고, 여군의 군생활 경험, 여군의 적응과정에 초점을 두고 주제를 도출하였다. 여군의 군생활 경험에서 나타난 대주제는 여군의 분투와 사라지지 않는 장벽이고, 관련 주제는 소수집단의 소외감, 신체적인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 여성에게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부당함, 임무수행에서의 장벽이다. 여군의 군생활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대주제는 적응과 성장이고, 주제는 여군이 아닌 군인이 되어감, 관계 안에서의 인정과 자부심, 내·외적 성장으로 나아감, 삶의 과정으로 수용하고 통합함이다. 분석결과의 중심현상은 '여군 롤모델의 부재와 사라지지 않는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었다. 여군의 직업적응과정 측면에서 볼 때 군생활 중 사라지지 않는 장벽과 분투하는 과정, 여군 롤모델의 부재속에서 내·외적 갈등을 경험하는 과정, 강인한 군인됨을 선택하여 여군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적응과정,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군생활의 힘들음을 내·외적 성장으로 이끌어 내어 여군이 아닌 군인으로 되어가는 것을 가치로운 삶의 과정으로 수용하고 통합해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여군, 적응과정, 성역할고정관념, 포커스 그룹 인터뷰

\* 본 연구는 김재은(2018)의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여군의 군생활 경험과 적응과정'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지현,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Tel : 02-320-1856, E-mail : mongsanga@hongik.ac.kr

최근 여군 인력 증가와 함께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여군의 군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엘리, 2012). 우리나라는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 정책과 함께 2006년 이후 본격적인 여군 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까지 우수한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여군이 군의 일원으로 잘 통합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방력 증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김경순, 2011). 여군의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여군이 남성 중심사회인 군대에 잘 적응하여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이 직장으로 선택한 군대는 일반사회와 다른 문화와 특수성을 갖고 있고, 강한 남성의 특성을 가진 남성 주류집단이며, 이곳에서 여성은 소수집단으로서 적응하는데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된다.

군대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남성중심사회로서 국가 안보를 위해 항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어 위급 시에는 다른 사회조직을 통제하는 우선권을 갖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특히 군은 전통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남성적 전사를 핵심 패러다임으로 놓고 강한 군대와 강한 군인의 정체성을 내세워 남성의 육체적 우월성과 물리적 힘은 진정한 군인 됨의 기준이 되었다(국방백서, 2020; Dunivin, 1994; Katzenstein & Reppy, 1999). 여군은 남성에 비해 낮은 체력과 임신, 출산, 성적 취약성으로 인해 전투에 부적합하고 군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며, 군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인식되어 왔다(서민교, 2007). 군과 남성성을 연구한 학자들은 군인 주체가 된다는 것은 강한 남성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강

한 군인 됨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성을 약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정하고 폄하하면서 군인 주체가 형성된다는 견해를 가졌다(이영자, 2005).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문화는 군대의 인원 구성비 면에서도 다수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이동훈, 2001). 군대의 특성에 따라 형성된 군대문화는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남성중심 문화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속한 일부로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그대로 유입되었다.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남성중심문화는 일반적으로 직장 여성이 주어진 업무 자체보다도 더 힘들어 하는 요인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여성은 사회구조적으로 오랜 과거부터 편견과 차별의식에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실제로 주변의 성차별적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Sharf, 2002). 남성중심문화는 여군에게도 군대의 특수성과 더불어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에 놓이게 한다.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 특성이 강한 군대는 성차별적인 조직문화가 뿌리깊게 형성되어 있어서 남성적 시각과 다른 것은 비정상적인 것(deviant)으로 간주하여 여군은 다양한 측면에서 불편감을 느끼기 쉽다(조혜원, 2012).

군대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제도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보다 비가시적이고 비공식적인 간접차별로 드러난다(류영숙, 2002).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이란 동일한 판단기준을 사용하더라도 성별이나 인종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정금나, 1999). 군대는 여군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인해 그 동안 남성중심의 군대문화를 양성평등의 문화로 전환하고, 군의 제도도 남녀통합

체제로 전환하면서 남녀가 군인으로서 동등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김엘리, 2012). 따라서 군대는 여군을 남군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하에 일부 보직에서 여군의 접근을 제한한 것 외에 임금, 보직, 교육 기회, 진급에서 차별하도록 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군은 특정 부대나 특정 직무에 배치되고, 주로 하위 계급에 집중되어 결과적으로 남성중심적 군대문화, 여성편의시설 부족, 남군 역차별에 대한 인식의 결과, 여군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직무만족도는 여군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의 큰 장애요소가 된다(손정민, 2012). 여군은 군대조직에서 임무수행 역할 외에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갈등이 많으며, 역할에 대한 갈등은 스트레스로 연결이 된다. 특히 여군은 남성적인 성역할에 부합되는 일을 하면서 편견으로 인해 군대의 남성중심적인 문화로부터 다양한 방식의 배제와 차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는 여군의 직업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 성역할은 사회나 문화에 따라 각각 다르다(Helgeson, 2002). 동일한 삶의 영역과 경험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사회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강한 남성성이 요구되어지는 군대라는 동일한 환경 내에서 남군과 여군의 경험은 다르고 경험의 의미도 다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 성에 기초하여 각 개인의 성에 적합하다고 기대되는 특성들을 내면화(Helgeson, 2002) 했기 때문이다. 즉 각 개인은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성 성역할, 여성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준, 기대, 규범을 내면화하게 된다(Kilmartin, 2009; Pleck, 1981). 이 정의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환경 내에서도 서로 다른 사고, 정서, 행동과 가치를 경험하고 표현하게 된다는 생각을 포함한다.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에서 성차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은 성차의 원인으로 환경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역할(gender role)을 고려한다(김지현, 2008; Bem, 1974; Gillespie & Eisler, 1992; Helgeson, 2002; O'Neil, 1981; Pleck, 1981; Spence, Helmreich, & Stapp, 1975). 이는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 성에 기초하여 각 개인의 성에 적합하다고 기대되는 특성들을 내면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Helgeson, 2002).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환경 내에서도 서로 다른 사고, 정서, 행동과 가치를 경험하고 표현하게 된다는 생각을 포함한다. 군대라는 동일한 환경 내에서도 남군과 여군의 경험은 다르고 경험의 의미도 다르다. 연구자들은 남성에 비해 보다 유연한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적응 과정에 중요하다고 보았다(Bursik, 1991; Diedrick, 1991). 따라서 여군이 여성으로서 내면화한 성역할과 불일치한 군생활 적응 과정에서 요구되는 남성성역할을 어떻게 수용하면서 자신의 여성성역할 태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성장해 나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군은 군 입대 후 군대에서 요구하는 남성적 특성으로 혼란되며, 이로 인해 내면화된 성역할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역할 내면화의 부정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관계로서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Lazarus, 1976)이라고 하였다. 즉,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와 갈등상황을 극복하여 성장을

이루는 것이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손상 없이 현실적으로 심리적인 만족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이 개인과 환경 사이의 교류의 개념임을 강조하고 적응 과정에 초점을 두어 단일한 반응이나 행동, 경험만을 탐색하기보다 경험의 흐름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어떤 직업이나 역할에 대한 적응 과정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여군이 남성중심문화의 군대 환경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위기와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적응해 나가는지, 군생활의 경험이 여군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군의 개별적 경험의 주제와 그 주제의 의미를 탐색해 나간다면 여군의 군생활 적응과 군인으로서의 성장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개입을 도울 수 있다.

여성 진로상담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의 진로발달은 남성의 진로발달과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여성을 위한 진로상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독특한 진로발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Gottfredson, 2002; O'Brien & Fassinger, 1993),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진로와 관련된 부정적 경험이나 사건들을 통칭하는 진로장벽은 작업이나 진로계획 상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Betz & Fitzgerald, 1987)이고, 진로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을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다(손은령, 김계현, 2002). 여군이 진로장벽에 대처하는 것이 일반 여성의 진로경험과 비슷하지만 군대의 특수한 조직문화와 열악한 환경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여군의 군생활 경험과 적응과정

을 이해하는 것은 여군의 실제적인 진로 발달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여군은 남성중심적 군대문화의 모순적인 상황에서 여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며,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군인이 되어가는지 그 적응 과정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로 탐색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여군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군대의 효율성 측면에서 여군의 인력활용과 역할, 효율적인 운영 방안, 성공적인 임무수행, 직무 능력에 관한 양적연구나 문헌연구(김동원, 2007; 송명진, 2014; 송병주, 김태숙, 2010; 정계룡 2018)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질적연구는 미진하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실제로 여군의 운영 체계 및 정책이나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양적연구는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진 제한된 변인들에 집중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여성이 군인으로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전체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질적 연구를 통해 양적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여성이 군대에서 어떠한 독특한 경험과 과정을 통해 군대에 적응하고 성장하여 군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지 그 실제적이고 주관적인 내·외적 경험들을 드러내고 그 의미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질적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 재구성되는 경험의 실제(reality)에 대해 개인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기술하고, 개인의 관점에서 그 삶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적 접근 방법이다(김영천, 2006).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들 중에서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동일한 경험을 한 참여자들이 모여 연구자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내면 경험, 감정 및 신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경험의 폭과

주제에 대하여 개인 인터뷰보다 심층적인 탐색을 할 수 있다(윤택림, 2004). 본 연구에서는 군조직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여군이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개방하는 것이 제한적이므로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탐색을 할 수 있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여군이 대표적인 남성중심 집단인 군대에서 소수의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개인의 다양한 내적 경험들과 그 의미들을 탐색하여 군인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보다 나아가 여군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후배 여군이나 후보생에게 군생활에 대한 장벽이나 대처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극복을 촉진할 수 있으며, 군상담 실제에서 여군들의 개인적 성장과 군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상담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연구 방법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군 중에서 4년 이상의 중·장기복무자로서 임무수행, 역할 및 환경, 문화적인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를 극복하여 군생활을 적응 해 나간 여군을 선정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여군은 예비역 장교 5명, 현역 장교 4명, 현역 부사관 3명으로 총 12명이며, 예비역은 전역한지 3년이 넘지 않는 대상이고, 계급은 중사부터 소령까지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5세(28세-50세)이며, 복무기간은 평균 15.5년(4년-27년)으로 나타났다. 보직은 전투병과, 행정병과, 특수병과 등 다양

하지만 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방식은 여군이 군대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자기 개방이 제한적이므로 상호작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룹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3개 지역에서 3개 그룹으로 진행하였고, 그룹별로 모든 참여자들이 참여 가능한 일정과 지역 및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3개 그룹 중 A, C 2개 그룹은 장교이고, 1개 B그룹은 장교와 부사관이 포함되었다. B그룹의 경우 지역별로 참여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부대별 여군이 소수이고, 동의한 인원만 참여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장교와 부사관을 함께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7월에서 2017년 9월 사이 약 2개월 동안 진행 되었고, 인터뷰 시간은 그룹별 인원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맞추어 토의 주제를 사전계획 단계에서 질문지로 만들었고, 질문지 구성은 시작질문, 도입질문, 전환질문, 핵심질문, 마무리질문 순으로 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여군의 군생활과 적응 및 성장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개관하여 반 구조화로 작성하였다. 작성된 질문지가 연구의 목적에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 타당도는 상담심리 전공 교수 1명과 질적연구를 한 상담심리 전공 박사 1명에게 자문을 구하여 검증하였다. 검증된 질문지와 집단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참여자에게 메일로 발송하여 사전에 연구 목적과 주제, 인터뷰 일정과 장소, 토론식의 참여방법을 안내하고 주제에 대해 미리 생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비밀보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토의 내용은 연구 목적에만

표 1. 여군의 군생활 경험과 적응과정에 대한 포커스그룹 질문

구 분		질 문 내 용
시작질문	인적사항	• 나이, 계급, 보직, 경력, 결혼여부
도입질문	지원 동기	• 남성중심사회인 군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전환질문	초기 경험	• 군대에 대한 초기 경험은 무엇입니까?
핵심질문	군대 경험	• 여성으로서 군대에서의 경험은 무엇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극 복	•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마무리질문	의미찾기	•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군대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용됨을 약속하고 녹음과 현장 기록에 대해 사전 양해를 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인터뷰시 안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준비한 두 개의 녹음기로 모든 진행은 녹음하였고, 연구자는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모습, 감정변화, 강조점 등을 관찰하여 현장 노트에 기록하고 토의한 내용을 요약 보고하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 그룹을 진행하기 전에 모두 전사하여, 다음 그룹 진행시 질문을 수정·보완하였다. 수집한 면담 자료는 그룹별로 모두 본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는 상담심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군상담 경력을 6년 이상 가지고 있어서 군대와 여군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스터디그룹과 질적연구학회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의 진행 및 결과 도출 과정에 대해 학습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앞서 예비 그룹을 진행·분석하고 감수 받은 경험이 있다. 연구 감수자 1명은 상담 전공자로서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에서 상담 관

련 교과 강의를 하고 있다.

#### 자료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자료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는 체계적(systematic), 입증 가능성(verifiable), 순차적인(sequential), 계속 이어지는(continuous)으로 설명하고 있다(Krueger & Casey, 2014). 이러한 중요한 요소에 따라 모든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를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특정 자료를 피하지 않도록 하여 다른 분석자도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자를 결정하고 집단 구성, 질문과 분석 연결, 인터뷰 진행 등 분석을 염두하여 전 단계의 연결성을 두고, 한 그룹이 끝난 뒤 다음 그룹이 시작되기 전에 분석을 하여 다음 그룹 진행에 대한 정보를 얻는 지속성을 가졌다. 그리고 연구자는 자료로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과 패턴, 빈도, 강도, 특수한 반응, 정서 등을 고려하였다(Krueger & Casey, 2014; Lewis, 2001). 분석의 과정은 질적 자료 분석의 일반적인 과정인 전사, 코딩, 주제발견의 세 과정을 거쳤다(김영천, 2006). 즉, 전사하고, 전사된 원자료를 자세히 읽고 의미

있는 내용에 줄을 그으면서 개념을 도출하는 개방코딩(open coding), 개념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축코딩(axial coding), 중심현상을 도출하는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 전사작업(transcribing)

인터뷰가 끝난 후 바로 현장에서 기록한 메모노트 내용과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전사하였다. 축어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 의미를 파악하였고, 명료하지 않은 내용은 참여자들에게 다시 확인하여 내용을 정교화 하였다.

#### 개방코딩

전사된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내포된 내용과 함축하고 있는 범주를 찾아서 주제와 비교하여 분류하였다. 반복해서 읽고 의미가 잘 드러나 있는 의미 단위에 밑줄을 긋고, 의미 단위에서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반복되는 내용, 표현, 주제에 주제어를 명명하는 초기 코딩 작업을 하였다. 주제어는 자료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다양하고 개방적으로 표현하였고, 참여자의 생각이나 생활세계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김영천, 2006), 참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내부적 용어(emicterm)를 선택하려고 하였다.

#### 축코딩

개방코딩 한 자료를 보다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개방코딩 과정에서 흩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는 자료들을 재조직하는 과정이다. 개방 코딩을 통하여 도출된 많은 주제들 중에서 연구 주제를 잘 드러내는 공통적인 코딩들을 더욱 요약하고 몇 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이다. 주제에 따라 나뉜 부분을 다

시 읽어가며 참여자에 따른 핵심적 의견에 대한 코드를 도출하였다.

#### 선택코딩

도출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모으는 과정을 통해 동일 내용과 다른 내용을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내부자적 용어에서 드러난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고, 공통된 특성과 관련된 사회 구성적 요소를 탐색하여 명칭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주제를 개념화 하였다.

#### 주제의 생성

주제의 생성은 어떠한 규칙에 얽매이는 과정이 아니라 경험의 의미를 보는 자유로운 행위이다(Van-Manen, 2015). 발견된 주제는 참여자가 경험한 특정한 의미의 구조가 되고 선형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채 자료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수정되며, 이 과정은 순환적이다(김영천, 허창수, 2004). 이러한 과정에 따라 전사한 인터뷰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순환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주제에 초점을 두고 의미단위와 의미내용을 포함하는 하위주제를 찾고, 하위 주제를 다시 상위 단위로 묶어서 주제로 범주화 하였다.

#### 윤리적 고려 및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연구 과정 동안 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Morgan, 1998). 연구에 참여할 여군 현황 및 인원 확보를 위해서 연구자의 동료나 주변지인에게 소개받은 대표 여군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 공헌도를 설명하고 참여 가능한 인원 명단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명단에서 참여자를 선발하기 위하

여 먼저 한사람씩 전화로 섭외하는 과정을 거쳤다. 1차 구두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전화로 연구 의의를 밝히고 인터뷰 내용과 진행 방식, 녹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연구의의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인원에게만 관련 내용을 다시 이메일로 보냈다. 2차 동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받았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밀보장과 익명성,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참여자의 권리를 설명하였다.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고, 전사한 자료를 연구 참가자의 메일로 발송하여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의 기록과 내용을 최종 자료 제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전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전사 후 녹음파일은 파기하였음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확인 절차를 거쳤다. 질적 연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수정하며 읽는 과정을 거쳤다. 전사한 내용에서 추출한 정보는 주제별로 분류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2인의 분석자 및 1인의 감수자와 함께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수자의 피드백을 여러번 받는 과정을 거쳤다. 인터뷰 내용에서 지속적인 비교분석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하위주제와 주제로 분류하여 그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수정하여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감수자와 연구자의 분석이 상이할 경우 예를 들어 ‘성적대상화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하위주제를 ‘소수집단의 소외감’과 ‘여성에게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부당

함’이라는 주제 중 어느 주제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재차 협의 과정을 거쳤고, 주제 확인을 위해 인터뷰 참여자 중 감수자로 사전 동의한 참여자에게 확인 작업을 하였다.

## 결 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여 여군이 군생활을 어떻게 경험하며, 그 경험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제는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먼저 여군의 군생활 경험과 적응 과정에 초점을 두고 연구자가 도출한 의미단위는 107개, 의미내용을 포함하는 하위주제는 29개, 하위 주제를 다시 상위 단위로 묶어서 8개의 주제로 범주화 하였다. 여군의 군생활 경험과 적응과정을 경험적인 부분과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구분하여 경험적인 부분은 ‘여군의 분투와 사라지지 않는 장벽’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은 ‘적응과 성장’이라는 대주제로 범주화하였다. 여군의 분투와 사라지지 않는 장벽에서는 ‘소수집단의 소외감’, ‘신체적인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 ‘여성에게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부담감’, ‘임무 수행에서의 장벽’ 4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여군의 적응과 성장에서는 ‘여군이 아닌 군인이 되어감’, ‘관계 안에서의 지지와 인정’, ‘내·외적 성장으로 나아감’, ‘삶의 의미로 수용하고 통합함’ 4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심현상은 ‘여군 롤모델의 부재와 사라지지 않는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었다. 여군의 직업 적응과정 측면에서 볼 때, 여군은 군생활 중 사라지지 않는 장벽과 분투하는 과정, 여군 롤모델의 부재속

표 2. 여군의 군생활 경험에 나타난 대주제와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요약

대주제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요약	
여군의 분투와 사라지지 않는 장벽	소수집단의 소외감	군대 내 소수집단임을 실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자대 배치시 여군이 없는 부대는 혼자라서 여성의 일상을 공유할 대상이 없는데 외로움</li> <li>· 전방부대에 혼자 배치될 경우 격리된 듯한 소외감 경험</li> <li>· 소문에 대한 염려로 힘들어도 말 못하고, 소통할 수 없는데 소외되어 더 외로움</li> <li>· 소수집단인 여군에게 조금 더 폐쇄적으로 느껴짐</li> </ul>	
		불편해 하는 존재로 여겨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치껏 행동하게 됨</li> <li>· 일상에서 남군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불필요한 감정소모</li> <li>· 여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졌다고 눈치를 받게 됨</li> <li>· 담배를 아무데서나 맘대로 피울 수 없다고 불평함</li> </ul>	
		과도한 관심의 부담으로 고립됨을 선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부부터 병사까지 모든 남자가 예의주시함</li> <li>· 사소한 것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서 힘든 일과 후에도 자유롭지 못함</li> <li>· 소문의 두려움으로 남군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 고립됨을 선택함</li> <li>· 관심받기 싫어서 BOQ(영내숙소)에서 나오지 않음</li> </ul>	
	신체적인 다툼에서 오는 어려움	갖추어지지 않은 부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소 문제, 화장실 문제, 여성편의시설의 열악함을 경험</li> <li>· 탈의실이 없어 환복 할 옷과 신발을 큰 가방에 매일 들고 다니며 화장실에서 갈아입음</li> <li>· 한명의 여자를 위한 화장실은 역차별이 아니라 기본 인권이며 조건이 아니라 필수</li> </ul>
			훈련 시 기본적 욕구를 조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군 시 갈증해소를 위해 물로 입만 행구고 뺨기를 반복함</li> <li>· 훈련 며칠 전부터 물과 국물 있는 음식을 먹지 않음</li> <li>· 훈련 시 물과 식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행군 중 요로결석으로 응급실행</li> <li>· 장기 훈련 시 생리적 현상을 줄이기 위해 식량을 에너지바로 대신함.</li> </ul>
			훈련 시 화장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차별 논란과 여군이라는 비난을 듣기 싫어 기본적 욕구해결을 요구하지 못함</li> <li>· 훈련 중 나 때문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부담되어 내 화장실은 내가 알아서 해결</li> <li>· 훈련 시 캠핑용 화장실을 등에 짊어지고 가서 혼자 삼절하여 화장실부터 만듦</li> <li>· 훈련기간과 생리기간이 겹칠 때 오는 스트레스는 경력과 함께 스스로 방법 터득</li> </ul>
			훈련 시 생리처리 (menstrual)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대의 환경적 취약함은 여군의 생존과 직결됨</li> <li>· 야전에서 남군과 함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음</li> <li>· 생리(menstrual)를 할 때가 가장 극한 상황, 교체와 처리의 어려움에 놓임</li> <li>· 훈련기간과 생리주기가 겹치는 것이 가장 큰 신체적 한계</li> </ul>

에서 내·외적 갈등을 경험하는 과정, 강인한 군인됨을 선택하여 여군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적응과정,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군 생활의 힘듦을 내·외적 성장으로 이끌어 내어 여군이 아닌 군인으로 되어가는 것을 가치로운 삶의 과정으로 수용하고 통합해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제에서 나타난 여군들의 경험들에 대해 해석적 기술을 하고자 한다.

#### 여군의 분투와 사라지지 않는 장벽

##### 소수집단의 소외감

여군은 군대에서 남성위주의 문화와 소수라는 이중고를 경험한다. 군대는 다른 집단에 비해 다수 대 소수의 갭이 큰 집단으로 특히 남성성이 강하여 남성 권위가 더욱 두드러진다. 여군은 군대라는 폐쇄되고 고립된 사회적 특수성이 여군에게 더 강하게 적용됨을 실감하게 된다. 여군이 처음 자대 배치를 받을 때 군대에 여군이 혼자일 경우 여성으로서의 일상을 함께 공유할 대상도 없고, 군집단의 특성상 남군과 쉽게 대화를 할 수 없는 폐쇄된 환경에서 여군은 정서적인 외로움과 소외감을 크게 경험한다. 남성중심사회를 이루고 있는 군대에 들어간 소수의 여군은 남군들이 기존에 영위하던 문화와 일상생활을 더 이상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불편함을 주는 존재로 인식된다. 남군들이 그 불편함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할 때 여군도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하게 되지만, 불편함을 주는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은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로 사용되어 사회적 기술을 더 발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여군은 다수가 남성인 군대에 전입하여 병사로부터 모든 간부의 관심을 받는 존

재가 되며, 사소한 일부터 언행까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러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여군은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관심으로 인해 영내 독신자 숙소는 부대의 연장선으로 느낀다. 여군은 소수로서 소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계적인 제한에 의해 격리되고 스스로 고립됨을 선택해 나간다.

**군대 내 소수집단임을 실감함.** “군대의 환경적 문제가 뭐냐면 격리되어 있다는 건데.. [중략] 전방 같은 경우 BOQ에 갇혀져 있고, 그러면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서.. [중략] 혼자서 소수집단이다 보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거야. 맨 날 출근을 하는데, 남자들이 다 니깐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중략] 남자들이 하는 얘기는 주로 어제 먹었던 술, 술집에 나왔던 여자, 그리고 일..이렇게 세가지 더라고요” (참여자 A1)

**불편해 하는 존재로 여겨짐.** “군에 와서 보니까 훈련이나 육체적, 신체적인 것들은 너무나 쉽고, 이를 악물고 하면 되는데, 당장 어려운 건 내 옆에 사람, 감정적인 것들, 생활적인 것들 이런 게 부딪히다 보니까.. [중략] 평소에 담배를 피우다가 제가 지나가면, 제가 평소에 그분들께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 적도 없는데, 급하게 끄시면서, “에이~ 이제 담배도 못 피우겠다.” 이런 생활간에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참여자 B3)

**과도한 관심의 부담으로 고립됨을 선택함.** “퇴근을 하면 독신자 숙소가 또 부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밖을 나가면

나갔다는 소문이 나고, 들어오면 몇 시 들어왔다더라. 뭐하고 왔다더라... 남군들은 전혀... 여군은 나가서 몇 시에 뭘 먹고 왔다더라... 출근을 하면 다 알고 있어요. [중략] 처음에 진출가면 여군에 대한 소문이 쪽~ 퍼져요. 어떤 사람인지 미리 전에 있던 곳에서 정보를 다 파악해요. 물론 남군도 그렇지만, 여군은 더 심하죠.” (참여자 B2)

### 신체적인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

여군이 남성중심사회인 군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어려움은 신체적인 다름에서 오는 불편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대 배치 후 부대의 여성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데서 건디어 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보고한다. 훈련 시에는 기본적 욕구를 조절하며, 화장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만, 여성만의 특별한인 생리(menstrual) 처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애환은 참여자의 구체적인 표현 속에 녹아 있다.

**갖추어지지 않은 부대환경.** “당장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체력활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없으니깐, 항상 큰 가방을 메고 신발까지 챙겨 다니면서 화장실가서 환복하고 그랬어요.” (참여자 B3)

**훈련 시 기본적 욕구를 조절함.** “가장 어렵다, 힘들다고 느낄 때가 기본적인 욕구에 부딪혔을 때...[중략] 행군을 하는데, 가다가 배가 아프거나 화장실을 가려면

제가 어떻게 말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목은 마른데 물을 마실 순 없어요. 누가 ‘물 먹을래? 물을 왜 안 드십니까? 물을 드십시오’ 라고 해도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깐 입만 헹구고 뱉고, 근데 훈련을 하루 하는 거면 이를 악물고 버티면 되는데, 장기간 나가는 훈련도 그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깐 밥도 먹으면 배 아프니깐 에너지바를 챙겨가고 진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만 먹고...” (참여자 B3)

**훈련 시 화장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감.** “지금은 훈련하면 제가 개인용 화장실을 사서 등에 메고, 왜냐면 누구한테 훈련 가서 행정관님이나 간부들한테 ‘화장실을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고, 꺼내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깐.. 지금은 아예 개인적으로 사서 혼자 메고 가서 삼으로 다 땅 파서 화장실을 만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너무 슬픈 겁니다. 이런 정말 사소한 것까지 힘들어야 되나 먹지도 못하고..” (참여자 B3)

“훈련 나가면 화장실 설치하는 게 여군 거라서... 제 입장에서는 저 때문에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가는 게 부담되서 ‘괜찮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통신병 전령이라고 늘 같이 다니는 병사가 있는데, 망보라고 시키고 판초우 뒤집어쓰고 산에서... 판초우 쓰면 안 보이니깐. [중략] 철원 평야 한 가운데 지뢰를 치는 거였는데, 2~3시간 계속 쳐야 되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남자들은 그냥 옆에 가서 뒤 돌아서 하면 되

는데, 저는 두 번 정도 여름날이고 해서 조금씩 싸서 말렸던 적이...(웃으며) 있었습니다.” (참여자 C1)

**훈련 시 생리(menstrual) 처리의 한계.**  
“생리할 때, 그때가 가장 극한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훈련은 당연히 훈련대로 하는 건데.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교체 조차 할 수 없고, 그러니깐.” (참여자 B3)

“평시에도 생리통으로 고생을 하는데, 훈련이랑 겹치면 죽음입니다. 훈련을 매번 빠지거나 안할 수도 없고, 약을 먹어도 힘들고, 새서 옷에 묻기라도 하면 끔찍을 못합니다. 남군에게 소문이 날까봐.” (참여자 B4)

#### 여성에게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부당함

여군은 군대에서도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여군은 전투력을 배양해야 하는 군인임에도 나약한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존재로 인식되어 여성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 고유의 여성성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남자답다는 말을 군인의 자질을 갖춘 군인 됨의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여성성을 스스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여군은 여성에게 고정된 성역할 기대에 대한 부담을 군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경험하게 된다. 군대의 환경적·상황적 특수성은 자녀양육이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여군이 군대의 육아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또한 군복무와 훈련 중에도 가사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

을 경험하게 된다.

**나약한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짐.** “제가 처음 갔던 부대에서는 여장교는 처음이었는데, 부사관 한 명하고 제가 있었는데, 제가 좀 나이도 어리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깐 다들 약간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관심도 쏠리고,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면은 불안해가지고 약간 온실 속에 화초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되게 많이 조심해 가지고... 남군들이 있던 사회에 제가 들어가니깐 말투부터 행동까지 다 신경을 쓰니깐 저도 나름 신경이 쓰이고, 생각보다 여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 하는구나...” (참여자 C2)

**평가절하에 따른 피해의식을 갖게 됨.**  
“여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되게 낮은 거 같습니다.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여군은 체력이 안 좋을 것이다’, ‘요구 사항이 많을 것이다’, [중략]. 열심히 하면 좀 더 높게 평가받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중략] 여군이어서 조금만 잘 해도 돋보이는 게 있습니다. 체력이 조금만 좋으면 엄청 좋다고 하고, 밤을 조금만 새면 엄청 훌륭하다고 하고, 남군이면 당연한 건데, 이게 역차별이 될 수도..” (참여자 C3)

“우리를 굉장히 낮게 봐요. 우리 다 대학 나오고, 우수한 대학 나오고, 사고수준도 높은데도 굉장히 낮게 보고 수준 이하로 보고 있어서 그냥 해야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한다고 봐요.” (참여자 A3)

표 3. 여군의 군생활 경험에 나타난 대주제와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요약

대주제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요약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부당함	나약한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짐		·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한 존재로 바라 봄	
			· 늘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관심으로 신기하게 쳐다 봄	
			· 전입 초부터 여군을 우러의 눈빛으로 바라 봄 · 지휘관이 여군인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짐	
	평가절하에 따른 피해의식을 갖게 됨		· 여군에 대한 낮은 평가로 핸디캡이 주어짐	
			·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기본만 해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음	
			· 여군이라서 의견이 무조건 거절된다고 생각하게 됨 · 피해의식 때문에 남군보다 수용과 타협이 조금 더 어려움	
	성적 대상화에 대한 두려움		· 최대한 옷차림과 화장에서 튀지 않으려고 애씀.	
			· 화장품은 무향 무취, 최대한 여성스러움을 드러내지 않음	
			· 남군과 친해지면 오해 받을까봐 친해질 수 없음 · 결혼한 후에야 남군과 간부들과의 관계도 편해짐	
	스스로 여성성을 부정함		· 여자 같은 행동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여성성을 조금씩 없애기	
		· 남자 같다는 말을 칭찬과 인정으로 받아들임		
		· 군인으로 인식되길 원하며, 여자로 보이길 원하지 않음		
여군의 분투와 사라지지 않는 장벽	일·가정 양립이 제한된 상황에 놓임		· 격오지 근무로 어린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음	
			· 훈련, 비상 훈련, 조기출근과 잦은 야근으로 자녀 돌봄이 제한되는 상황	
			· 눈치와 잔소리를 들으면서 탄력근무제를 활용함 · 부부군인의 경우 여자가 육아를 위해 군인을 포기함	
	불합리한 배치와 진급		· 진급보다 어려운 보직 찾기와 지휘관의 승인받기	
			· 체력과 군사성적이 남군보다 좋으나 배치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	
			· 역량을 발휘해도 정책적 제한으로 인한 한정된 부대 배치로 계급에 서의 필수 보직이 제한됨 · 지휘관에 따라 여군에게 경쟁의 기회가 제한되고 직위의 한계가 정해짐	
	임무 수행에서의 장벽	임무수행에서 부당함을 느낌		· 훈련 열외에 대한 안내 없이 모두 떠난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겨짐
				· 남군 부하에게 계급도 무시당하고 사무실을 빼앗김
				· 자격수임에도 작고 왜소한 여군은 부대를 대표할 수 없음 · 열외 되어 부대원과 어울리지 못함으로 인해 간부로서의 역할이 제한됨 · 남군과 업무 외의 모임이 없어서 정보단절로 인한 업무역량 차이가 결과물로 나타남
	병사관리의 제한점		· 훈련에서 병사들과 함께 몸으로 부대끼고, 동고동락하는데 한계가 있음	
		· 훈련 중 자기 소대원 샤워를 타 소대장이 통제함		
		· 소대장인데 소대원에게 인정받지 못함		
여군 롤모델의 부재로 막연함		· 여군 선배의 부재로 남군을 롤모델로 설정함		
		· 초급 간부 시절 여군 롤모델이 없음에 막연함과 애매함, 정체성 등에 혼란을 겪게 됨		

**성적 대상화에 대한 두려움.** “저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자 티가 나는 거 입으면 안 된다. 색깔도 항상 무채색, 저 지금도 남자 트레이닝복 입습니다. 요즘 거는 너무 딱 달라붙고 드러나고 짧고 그러니깐 여차피 남자가 많은 집단이다 보니깐, 오히려 제가 지금은 기성세대가 돼서 같은 부대에 있는 여군들이 그러고 다니면 제가 그게 되게 불편한 것도 있고, 지휘관들도 불편해 하고, 대부분이 남잔데, 병사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도리어 남군이 아니라 여군이라서 더 관심이 가서 얘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화장품도 무향무취로...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여자 C1)

**스스로 여성성을 부정함.** “재 정말 남자 같다’하면 양성평등에는 맞지 않지만 그런 게 마치 칭찬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엔 정말 칭찬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엔 제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그게 칭찬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끼긴 했는데, 초급장교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일단 그들과 다르지 않다. 그들만큼 할 수 있다. 여자보고 남자 같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참여자 C1)

**일·가정 양립이 제한되는 상황에 놓임.** “저 같은 경우는 애기들 하고 가정을 함께 이루지 못했던 게 가장 힘든 일이었는데. 4가족이 다 떨어졌어요. 아이를 시댁에 맡겼어요. 막 태어나자마자 신

랑도..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A3)

“애가 있는 여군들은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 일 겁니다. [중략] 훈련 같은 걸 나가더라도 4박 5일, 2박 3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군인이다 보니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과가 06시에 시작해서 22시 23시에 마치고, 야전에서도 저는 매일 05시에 출근했습니다. 임무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대부분 자정 넘어서 퇴근을 하는게 많기 때문에.. 군인들은 거의 매일 그랬습니다. 출근할 때 자식을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번 정도 봅니다.” (참여자 C1)

#### 임무수행에서의 장벽

여군은 자대 배치와 함께 본격적인 임무수행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시점에 군대내 팽배한 남성중심적 군대문화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배제는 직·간접적인 차별로 나타나며, 여군이 군대에 지원하게 된 동기인 평등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고, 앞으로 진급체계에서의 동일한 대우를 위협당하는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여군은 병사관리에 있어서도 신체적인 다름으로 인한 제한점을 경험하지만, 여군 롤모델의 부재로 행동 선택에서 막막함과 내적 갈등을 경험하며 남군을 롤모델로 선택하게 된다.

**불합리한 배치와 진급.** “난 자대 배치도 못 받았어요. 막 가려고 했는데, 각 부대 지휘관이 다 안 받으려고 했어요. 여군이라서... 그래서 비편제로 1년을 지냈어요.” (참여자 B1)

“체력적으로 저도 되게 스스로 좋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사격이나 군사적인 기질이 남생도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임관을 해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GOP나 이런 접적지역(接敵地域)이 아니라 신교대로 갔었고... [중략] 필수 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급에선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여군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자주 바뀌는 그런 부분이 남군들보다 더 커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데... [중략] GOP로 간 A라는 동기보다 제가 군사성적도 더 좋고, 체력도 더 좋았는데 여성, 여군이라서 신교대를 가고 그 친구는 GOP를 가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C3)

**임무 수행에서 부당함을 느낌.** “처음 자대에 갔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넌 이걸 하지마. 안해야 돼’ 이런 것들이 많았고, 약간 통제된 것, 하려는 맘의 준비가 다 되어있고,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중략] 훈련을 하는데 열외 시켜놓고 나갔습니다. 저한테는 너가 훈련을 안 나간다는 말을 해 준적이 없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저쪽 가서 뭇 좀 챙겨와’ 해서 챙겨오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훈련에서 소외될 때 아직도 그게 가장 허탈 했구요. 그 텅 빈 중대에서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략] 제가 사격을 되게 잘 했습니다. 방 송매체에서 촬영을 나오기로 한 날에 저희 중대에서는 제가 제일 잘하는 저격수니까 당연히 저격수용 총을 제게 줬고,

오전 내내 촬영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근데 대대장님이 오셔서 [중략] “남군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군이 저격수라고 하면 이 부대를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 매체에서 봤을 때 이 여군보다 다들 사격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래서 바꾸라고, 제가 키도 작으니깐 나머지 애들이 다 웃겨버린다는 겁니다. [중략] 그때도 또 한 번 허탈함을..” (참여자 B3)

“우리는 소령까지다 그것도 보직은 참 모직이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들리더라고요. [중략] 남자들은 소대장하고 중대장 할 때, 우리는 참모직 편한 데만 있으면서 진급케이스에 들어갈 수 없는데...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문제였지... 그래서 어떤 보직을 주는지 지휘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참여자 A3)

**병사관리의 제한점.** “유격 훈련 갔을 때 애들 샤워를 그냥 강가에서 하는데, 통제를 내가 할 수 없으니깐, 옆 소대장이나 옆 중대장이 대신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처음에 가면 솔직히 병사들도 여군이라고 하면 조금 낄본다고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중략] 화장실, 샤워장은 지나다니면 그전까진 여군이 없었으니깐 막 열어놓고 다니는데... [중략] 그때는 그냥 내 소대원이니까, 내 자식이다 그런 맘으로 그냥 지나가고 조금 놀랬긴 했지만.. 내가 놀란 표시를 내면 그 애들이 더 민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입고 다녀~’ 그런 식으로 대범한 척... 그래야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참여자 C1)

**여군 롤모델의 부재로 막연함.**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장교가 처음이다 보니깐 제 행동이 맞나 안 맞나의 롤모델을 정할 때 일단 남군을 설정하게 되고, 여군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중략] 임관하고 자대 배치 받은 후 한 1년 그때는 뭘 해야 될지도 막연해서 모르겠고, 관심은 다 쏠려 있는 상태라서 잘 해야겠고, 여군 선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맘으로 임해야 될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 정체성 같은 거를...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그전까지는 계속 걱정하느라고...” (참여자 C2)

#### 여군의 적응과 성장

##### 여군이 아닌 군인이 되어감

여군 참여자들은 군인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평범한 일반 여성이 군대에 입대하여 힘든 훈련을 마치고 남군과의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남군처럼 동일하게 생활해 가면서 강인한 군인 됨을 갖게 된다고 한다. 처음엔 다수의 기득권자인 남군들의 테스트를 견디어 내야하며, 평등한 대우를 위해 남군과 동일하게 해나가면서 군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게 된다. 정보단절로 인한 정보력에서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정보력을 갖고자 더 많은 노력을 하는가 하면, 여군 스스로가 가진 피해의식을 객관화시켜서 오히려 사고의 유연성을 갖게 된다. 또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자기 돌봄을 철저히 하며 적극적 자세로 군인 됨을 선택해 나간다. 지휘관 역할을 할 때는 여성성의 긍정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병력관리에서 시너지를 발휘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군이 군대 내에서 진급을 해 나가고, 지휘관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큰 사회적 지지라고 할 수 있으며, 성취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 군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애씀.

“모든 것에서 똑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어올 때 평등하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듯이 모든 것에 똑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남군들한테 책잡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술 마시는 것 하나부터 족구도 맨날 하면서 돈을 잃으면서, 소대장이 뛰어야지 하면서, [중략] 계급이나 보여 지는 것은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의식이 야전에 여군이 처음 보내졌기 때문에 “여자가?” 이 생각을 병사부터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여자 A3)

“처음에 소대장 때 이·취임식을 유격 훈련 중에 유격장에서 했습니다... [중략] 근데 비가 왔는데, 그때 애들에게 되게 강한 인상을 준 모양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흐트러짐 없이 젖고 그랬는데, 딱~ 버티고 있으니깐... 근데 개들이 새로 온 소대장이 여군인 걸 알고 복귀할 때 내 군장에 모든 걸 다 집어넣었던 겁니다. 원래 있는 것보다 더 무겁게... 근데 저 그냥 그거 들고 40Km 행군 하면서 배운 대로 쉬는 시간에는 소대원들 챙기고 했는데... 그런 길들이기, 테스트 이런 걸 했는데... [중략] 그러니깐, 병사들이 저

표 4. 여군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대주제와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요약

대주제	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요약
적응과 성장	여군이 아닌 군인이 되어감	군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애씀	· 병사들이 여군을 체력적으로 테스트 함 · 평등한 대우를 위해 모든 걸 남군과 동일하게 함 · 여자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모든 걸 똑같이 하려고 애씀
		당면한 어려움을 객관화시켜나감	· 정보의 단절을 막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함 · 정보력을 남들보다 더 많이 쌓아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끔 함 · 시행착오 끝에 수용과 타협을 하게 되고, 유연하게 생각함
		여성성의 긍정적 특성을 활용함	· 지휘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어머니 역할까지 겸함 · 병사에 대한 관심과 챙김이 남군보다 세심하고 섬세함 · 부모님이 병사를 맡기고 안심함 · 병사들이 남군 간부보다 부담 없이 다가옴
		지휘관 역할로 자부심이 생김	· 계급이 올라갈수록 평등이 현실화되어 성취감을 느낌 · 특별함이라는 의미 부여로 특권의식을 갖게 됨 · 남녀평등과 불평등을 경험하며, 지휘관으로서 남자들을 지휘해 봄
	관계 안에서의 인정과 자부심	가족의 희생과 응원 그리고 인정	· 가족의 인정을 받으며 자긍심이 생김 · 가족의 자부심이 되는 것에 뿌듯함을 느낌 · 가족과 함께 못 보내는 희생을 군복무인 내 삶에 충실함 · 딸이 엄마를 특별한 여성으로 보고 인정함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함	· 함께 어울리는 모임 안에서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정보를 공유 · 동호회나 사회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함 · 나를 이해해 주는 동질 집단을 활용하기 · 동기 카톡방에서 힘들음을 표현하고, 관심과 위로 받음
	내·외적 성장으로 나아감	특별한 존재가치로 여겨짐	· 여군의 희소성과 높은 평가를 인지함 · 누구나 쳐다보는 특별한 존재가 됨 · 남들과 다른 경험을 한다는 특별함, 독특함이 있음 · 일반인과 다른 군인으로서의 남다른 자긍심과 자부심
		책임감으로 강인해짐	· 처음엔 참고 내가 검증될 때까지 열심히 하며 기다림 · 내가 못하면 다음 후배는 없다는 여군 대표성과 무의식적인 책임감 · 집단에 속하기 위해 나의 양보와 손해가 필요함
		용기와 도전정신으로 단단해짐	· 실패하지 않고 홀로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음 · 군대경험으로 단단해져 강한 정신력과 삶에 용기를 갖게 됨 · 훈련과 극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군인으로 만들어짐. · 고된 훈련 이후 피로감이 풀리면서 강한 성취감을 맛 봄 · 남군과 똑같이 운동하며 하나씩 마스터 해 나감
		일과 배움으로 즐거움	· 군생활의 매력을 느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음 · 버티기 위해 자기계발에 집중하여 스스로를 성장시킴 · 공부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군대에서 선택함 · 운동으로 건강 챙김과 활동적인 여가를 즐김
	삶의 과정으로 수용하고 통합함	투철한 사명감을 가짐	· 나라를 지키는 군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 · 위기 상황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곳 · 내가 곧 군대이고, 군대가 곧 나다 · 내 생명 조국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음
		직장 이상의 의미	· 군대라는 직장보다는 군대의 존재 가치에 큰 의미를 둠 · 군대는 나의 건강, 목숨과 맞바꿈 곧 희생이다 · 군대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서 안정감
가치로운 삶의 과정		· 힘든 군생활이 현재의 내 모습, 내 삶을 만들어준 디딤돌 · 군대는 내 짧은 날의 초상으로 삶의 과정중의 하나로 봄 · 군대가 내 삶이자 내 삶의 전체 내 삶의 미래 진행형	

사람 철의 여인이다. 저는 그렇게 쉽게 넘어갔습니다.” (참여자 C1)

**당면한 어려움을 객관화시켜 나감.** 남군이 업무 외 공간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양한 대인관계로 형성된 모임은 정보 교환의 장이 된다. 이러한 비공식 자리에서 제외된 여군은 정보력에서 열등할 수밖에 없지만,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여군은 개인적으로 남다른 노력을 통해 자신이 정보력을 갖거나 남군과 다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다. 여군은 불평등을 경험하면서 피해의식을 갖게 되지만, 점차 피해의식을 객관화하고 사고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갖게 되며, 상황과 타인을 타협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업무를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의 특성상 애가 더 어울리는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 겹에 피해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분야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걸 유연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A3)

**여성성의 긍정적 특성을 활용.**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내가 지휘관이니깐 더 애들(병사)을 더 지켜야 된다는 소명의식도 있고, 어머니로서 역할도 플러스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A3)

“여군이라서 용사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 남군한테는 조금 부담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쉽게 잘 찾

아오고, [중략] 부모님도 아무래도 남군이 전화하는 거랑 제가 전화하는 거랑은.. ‘군에 여자 있는 줄 몰랐다고, 안심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편안하게 그냥 전화하시고, 그런 쪽에선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약간 안심하고 맡기는 분위기가 되니깐..” (참여자 B2)

**지휘관 역할로 자부심이 생김.** “계급이 올라가면서 이게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게 되고, 여군이? 여자가? 그리고 계급이 올라가면서 느끼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거기에 대한 성취감... 처음에 얘기했던 평등을 계급이 올라가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참여자 A3)

#### 관계 안에서의 인정과 자부심

여군들은 군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성격 강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시켜주는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 여군 참여자들이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지지와 인정은 군생활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의미 있는 관계 내에서의 정서적 지지는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이다. 여군이 제한된 군대환경에서 지속적인 군복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희생이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은 여군이 군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가치를 느끼게 해 주는 동시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 또한 군대에서 여군은 소수자이자 여성으로서 남군과 동일하게 힘든 과정을 겪어낸 특별한 존재로서 외부의 높은 평가와 희소성에 따른 사회

적 관심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내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기나 사회 친구, 동아리 회원 등과 정기적 만남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 정서적 통제감도 증진시킨다.

**가족의 희생과 응원 그리고 인정.** “애기들과 가족들이 다 성원해 줬다... 열심히 해라. 걱정하지 마라... 할 수 있다. 응원해 줬던 거... 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 (참여자 A3)

“이제 되돌아보면 내 자녀한테 엄마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을 해 줄 수 있고, 우리 딸이 엄마를 존경하고...” (참여자 A4)

**특별한 존재 가치로 여겨짐.** “우리에게 희소성도 있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중략] 출장 갔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가잖아. 군복을 입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 아주머니들이 들어오다가 ‘어머~’하고 놀라는 거야. 남자가 와서 손 씻고 있다고 처음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게 불편했는데 그걸 참고 견디니깐..[중략] 여군이기에 때문에 보는 눈, 그런 것도 굉장한 보상이었던 것 같애.” (참여자 A1)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함.**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후배들도 만나고, 이렇게 모임들을 하면서 정보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스

트레스도 풀었던 것 같고...[중략] 친구들이 말 할 때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마음? 그럴 때 내 안에 뿌듯함이 있었고, 그렇게 나한테는 보람이었고, 후회 없는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A3)

### 내·외적 성장으로 나아감

여군은 군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내적 특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내·외적 성장으로 나아간다. 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운 경험으로 이전보다 내·외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성장한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 내게 된다. 여군 참여자들이 나타낸 내·외적 성장을 가져온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여군은 자신이 속한 군대에서 여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에 책임의식을 가진다. 의무감과 책임감은 사적인 이득이 아닌 집단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자신과 군대를 타협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더 강인해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여군이 가진 용기와 도전 정신은 내·외적 난제와 위협에 직면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여 목표 추구 의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 참여자들이 가장 잘한다고 자부한 인내는 버티는 힘으로써, 여군이 군생활에서 반복된 장벽들에 부딪힐 때도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긍정적 에너지와 모험적 태도로 생활하여 강인한 군인다움을 갖게 한 것이 된다. 여군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내·외적 성장의 요인은 일과 배움으로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군은 군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응용하였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지속적으로 일과 배움으로 즐거움을 선택해 나간다.

**책임감으로 강인해짐.**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맞춰줘야 해요. [중략] 내가 이 집단에 속하려면 어느 정도 내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게 있어야 되요.” (참여자 B2)

“우리가 잘 못해서 무너지면 우리 후배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 생각이 굉장히 컸어... 내가 가서 그 보직을 똑바로 해내지 못하고 중간에 짤리거나 중간에 문제가 돼서 쫓겨나거나 하면 내 후배들이 못 온다. 나는 나 혼자만 아니라, 여군 몇 백 명을 내가 대표한다는 생각을 무의식 속에는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 무의식중에...” (참여자 A1)

**용기와 도전정신으로 단단해짐.** “그 과정을 거쳐서 되게 단단해지고, 그렇지 않나? 나는 우리 여군 장교들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책임감도 강하고, 정신력이 되게 강한 게, 우리는 군대에 들어가진 전까진 약간 독특할 수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여성이었는데, 그 환경을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건너다보니, 내가 단단하여졌고, 내가 단단해진 게 지금의 모습으로 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A4)

**일과 배움으로 즐거움.** “군대생활에 대한 매력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끌고 온 것 같아요.” (참여자 A2)

“부중대장을 하고, 3년 딱 하고 나서 교육을 받으러 고군반을 가는 시나리오

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신교대에서는 기본 장병훈련을 하다보니까, 전출 훈련이나 이런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떨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던 게 빨리 이 부대를 떠나야겠다... 방법이 군사 영어반에 가서 영어공부를 좀 했습니다.” (참여자 C3)

### 삶의 과정으로 수용하고 통합함

여군은 다수가 남성이고, 강한 남성성이 요구되어지는 군대에서 여성이자 소수자로서 희소성의 가치를 느끼고, 힘든 경험을 한 것에 대한 외부의 높은 평가로부터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 여군은 사회적 관심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이 속해 있는 군대와 자신을 동일시 해 나간다. 군대를 일반직장과 다른 직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 가치로운 것으로 여기고, 여군으로서의 군생활을 자기 삶의 과정으로 수용하고 삶의 전체로 통합해 나간다. 이러한 주제의 의미는 ‘투철한 사명을 가짐’, ‘직장 이상의 의미’, ‘가치로운 삶의 과정’이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짐.** “여군들은 안 와도 되는데.. 일단 어떤 사명감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중략] 나라에 한번 태어났는데, 뭔가 보탬이 되고 싶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오는 인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나라를 위해서 신성한 의무를 하고 있는 게 되게 보람차고” (참여자 C1)

**직장 이상의 의미.** “직장으로서 군대를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군대는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군대의 존재가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다른 거예요.. [중략] 지금도 어느 곳에서 내 후배들은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하루에도요 제 강함을 5번 하라면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참여자 B2)

“저도 군대라는 단어 앞에 직장이라는 단어가 낫선 것 같습니다. 군대를 직장이라고 생각해 적은 없는 것 같고, [중략] 군대가 저한테 주는 의미는 뭐.. 한 단어로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나 많은 것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고, 그냥 군대자체가 제 존재 자체 이유이고 이름 세 글자가 곧 군대라고 생각을 하니깐..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참여자 B3)

**가치로운 삶의 과정.** “군에 대한 의미보다는 생활에서의 내 삶을 꾸준히 살아온 것에서의 의미로 보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냥 내 삶을 살아온 거야.” (참여자 A4)

“군대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그냥 제 삶인 거 같습니다. 나의 삶의 전체다.” (참여자 C1)

## 논 의

본 연구는 여군의 군생활 경험과 적응 과정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경험들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 경험의 주제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사용하였고 심층면담을 위한 자료 수집은 3개 그룹, 12명의 참여자로부터 얻어졌다. 인터뷰 자료를 통하여 여군의 군생활 경험과 적응과정에 대한 주제를 확인한 결과 여군의 군생활 경험과 적응과정에 대한 대주제는 <여군의 분투와 사라지지 않는 장벽>과 <적응과 성장>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제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군의 군생활에서의 경험은 여군의 분투와 사라지지 않는 장벽이라는 대주제로 나타난다. 여군은 남성중심적인 군대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장벽과 같으며, 장벽을 넘기 위해 여군들은 분투하는 모습을 보인다. 첫 번째로 여군은 소수집단으로서의 소외감과 신체적인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제한된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되고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여군 스스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혼란감을 경험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여성의 정체성을 군대 내에서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여군의 분투와 반복된 장벽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군이 초기 훈련을 마친 뒤 자대에 전입하여 본격적으로 군대생활을 시작하면서 겪는 첫번째 경험은 <소수집단의 소외감>이라는 정서적 어려움이다. 여군은 남성중심의 폐쇄적인 군대에서 소수로서 소외되고 격리되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다수집단인 남군에게 불편감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때론 소수에게 집중되는 과도한 관심이 부담되어 스스로 고립됨을 선택해 나가며 군대에서 소수집단임을 절실히 실감해 나간다. 정서적인 소외감과 함께 경험하는 것이 <신체적인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인 생물학적인 어려움이다. 남성중심인 군대는 환경 또한 남성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여군을 위한 화장실, 탈의실, 숙소 등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부대환경은 여군의 초기적응의 어려움으로 경험된다. 때론 한명의 여군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남군으로 인해 기본적인 인권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여군의 생물학적 어려움은 열악한 부대환경에서 보다 훈련 현장에서 확연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군은 남군과 함께 동일하게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생리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이나 식사량을 생존 가능한 정도로 줄이며 기본적인 욕구까지 억제해 나간다. 또한 화장실 문제는 남군에게 요구할 수 없어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지만 때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봉착하여 훈련 시 생리처리(menstrual)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벽 외에 여군이 경험하는 또 다른 장벽은 <여성에게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부담감>이다. 여군은 군대에서 여성으로서 나약한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평가절하 되어 핸디캡이 주어지는 등 충분히 기능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시선으로 인해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고 참여자들은 보고한다. 또한 군대에서 여성으로서 다수 집단인 남군들의 성적 대상화가 되는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여성성을 부정하고 배제시켜 남성성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한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부담은 군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에서도 여군에게 더 강요되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여군이 군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장벽은 진로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임무수행에서의 장벽>이다. 여군은 초기 자대 배치에서부터 불합리한 배치와 진급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군대의 정책적 제한이나 한정된 부대로의 배치는 여군이 진급을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하는 보직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이는 곧 진급의 한계로 작용하게 됨을 인지한다. 특히 여군들이 초입 시절에 남군들의 부정적 인식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된다. 훈련 시 무조건 열외되거나 간부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거나 또는 남군들에 비해 정보단절로 업무역량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것들이 여군이 임무수행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것이다. 특히 군생활 경험이 적은 여군은 병력관리에 있어서도 성별의 차이로 인해 직접 할 수 없는 병력관리의 제한점이 있으나 남성 중심 집단에서 롤 모델로 삼거나 멘토링을 해 줄 수 없는 여군 선배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초입 여군은 군생활 어려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막연함과 애매함, 혼란감을 겪게 된다.

이렇게 군생활에서 여군의 분투와 사라지지 않는 장벽에 대한 경험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성역할 고정관념이 실제로 여성차별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정경아, 2001; 김지경, 2002)는 연구와 같이 여군은 군대에서 자대 배치나 임무수행에서 다양하게 배제되는 차별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배제는 직·간접적인 차별로 나타나며, 여군이 군대에 지원하게 된 동기인 평등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고 장래의 진급체계에서도 부당함을 예측하게끔 한다. 하지만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군대는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나는 차별보다 간접적인 경우가 더 많이 있고, 여군에 대한 차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지휘관의 마인드이며, 지휘관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라서 여군의 진로장벽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군대내 양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은 시사하고 있다. 또한 김지경(2002)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꾸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능력 있는 여성들이 자신을 여성으로서 동일시하지 않고 여성성과 심리적 거리를 둘 때 오히려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변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반 직장여성이 갖은 성적대상화가 일 몰입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백근영, 서영석, 2011)고 한 것 같이 여군도 초기에는 강인한 남성성이 요구되는 군대에서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하고 성적대상화가 되는 두려움으로 인해 외적인 여성성을 배제시키려 애를 쓴다. 하지만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여군은 일반직성 여성과 달리 강인한 군인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여성성을 강하게 통제하는 훈련을 해 옴으로 인해서 여성성을 계속해서 억압을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고정된 성역할에 부담감을 줄여주지 못한다고 경험하게 된다. 선행연구처럼 무조건 자신의 여성성과 심리적 거리를 두고 고정관념을 부정하기보다 남군이 아닌 여군 롤 모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여군으로서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여군만의 특수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군은 첫 자대 배치에서 선배 여군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여군으로서 사소한 일상부터 업무와 훈련 등에서 행동 결정이나 태도 선택의 갈등을 경험

하게 된다. 이는 이공계 여대생의 진로발달 장애요인 중 하나가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김영은, 한지영, 오명숙, 2013)고 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유영란(2014)은 진로발달을 위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군의 초기 군생활 적응을 위해서 무엇보다 좋은 여군 롤 모델의 필요성과 선배 여군의 멘토링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여군의 군생활 경험이, 여군은 군대의 직업적, 환경적,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직장 여성보다 신체적인 문제나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더 제한적임을 볼 수 있다. 여군의 극한 경험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군대의 환경적 취약함은 여군의 생존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군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여군의 군생활 적응과정에 나타난 대주제는 적응과 성장이다. 여군이 군대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성장해 가는지 그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군은 군대에서 생물학적 성과 심리사회적 성의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지만 군인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군이 아닌 군인으로 되어감>을 선택해 나간다. 평범한 일반 여성이 군대에 들어와 힘든 훈련을 마치고, 다수 기득권자인 남군들의 테스트로 군인 됨을 평가받게 되지만 여군은 남군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극한의 경험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남군과 동일하게 생활해 가면서 강인한 군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애쓰게 된다. 여군은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정보단절을 막기 위해 남다른 노력과 반복되는 시행착오 가운데 수용하고 타협을 통

해 당면한 어려움을 객관화시켜나간다. 또한 여군은 초기에는 자신의 여성성정체성을 부정하지만 군대 내에서 자신 고유의 여성성의 긍정적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임무수행과 병력관리에서 남군과 다른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역량은 특히 여군이 지휘관 역할을 하게 될 때 더 잘 드러난다. 여군은 계급이 올라가면서 평등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지휘관 역할로 자부심이 생긴다는 것은 곧, 여성으로서 남군을 리드한다는 남다른 리더십과 특권의식으로 강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여군이 군인으로서 인정받고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군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관계 안에서의 인정과 자부심>이다. 그 첫 번째가 가족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응원이다. 여군이 제한된 군대환경에서 군복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희생과 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의 희생과 응원은 여군이 군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며,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자원보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여군이 가족에게 인정받고 높게 평가받는 것은 가족 모두의 희생이 녹아져 만들어낸 결과이기에 더 가치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가족이 함께 한다는 맘으로 당면한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여군은 가족뿐 아니라 주변의 동기나 사회 친구, 동아리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적 통제감을 증진시키며 군인으로서의 정체감과 임무수행에 관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단순히 사회적 네트워크에 포함된 것 자체만으로 소속감을 느끼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기도 한다. 여군은 이러한 관계 속

에서의 인정과 응원으로 군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남성중심 집단인 군대에서 특별한 정체성을 갖는다. 여군은 자신이 군대에서 여성이자 소수자로서의 희소성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해 나가면서 자신이 가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여겨짐을 경험해 나간다. 또한 여군은 군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내적 특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내·외적 성장으로 나아감>을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운 경험으로 이전보다 내·외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성장한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 내게 된다. 여군 참여자들이 나타낸 내·외적 성장을 가져온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여군은 자신이 속한 군대에서 여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에 책임의식을 가진다. 의무감과 책임감은 사적인 이득이 아닌 집단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자신과 군대를 타협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더 강인해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여군이 가진 용기와 도전정신은 내·외적 난제와 위협에 직면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여 목표 추구의 의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 참여자들이 가장 잘한다고 자부한 인내는 버티는 힘으로써, 여군이 군생활에서 반복된 장벽들에 부딪힐 때도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긍정적 에너지와 모험적 태도로 생활하여 강인한 군인다움을 갖게 한 것이 된다. 여군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내·외적 성장의 요인은 일과 배움으로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군은 군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보나온 삶을 위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응용하였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지속적으로 일과

배움으로 즐거움을 선택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여군의 군생활에서 적응과 성장을 이루어낸 주제는, 군생활을 <삶의 과정으로 수용하고 통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군 참여자는 군생활을 더욱 의미로운 일로 인식해 나가며, 일반직장인과 달리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관과 국가관을 고취시키면서 공공의 목표 추구를 위한다. 여군은 때론 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하며, 부하를 지휘·통솔하기 위하여 술선수범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할 각오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여군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보다 군인으로서의 국가안보라는 신성한 의무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참여자들은 군대를 직장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군대를 동일시하며 군대의 존재 가치에 자신의 가치를 함께 연합시켜 대의를 위한 가치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한다. 또한 여군은 가치로운 일을 하는 것에 의미 두고, 힘든 군생활 경험이 현재의 자신을 있게 한 동력이자, 디딤돌이고, 계속 이어질 미래진행형이라고 말하며 군생활을 가치로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즉, 군생활의 경험을 삶의 과정이고 군대를 삶의 전체로 인식하므로 군생활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가치로운 삶의 과정으로 통합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여군의 군생활 적응과 성장이라는 대주제와 관련하여 남성중심집단에 속한 여성들의 성역할정체성이나 직업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여성은 남성중심의 집단에서 끊임없이 여성으로서 평가받는 상황에 처해 있고(전지은, 2012), 주류인 남성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들의 평가에 주의를 기울이며, 여자를 동료로서 인식하지 않는 남성

에게 동료로서 인정받기 위해 여성성을 버리는 전략을 선택한다(주혜진, 2008). 여성이 남성중심 집단에서 남성과의 마찰과 충돌을 통해 질충과 타협을 경험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자유로워진다(전지은, 2012)고 하였다. 또한 남학생이 절대다수인 학과의 여대생 경우 남성성역할 정체감은 진로 정체감을 높이고, 여성성역할 정체감은 진로정체감을 낮추는 부정적 영향으로 보았다(김나리, 2010). 본 연구에서도 여군이 군생활 초기에는 남군들의 평가와 테스트를 받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며 군인으로, 또 동료로 인정받기 위해 여성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남성성을 선택하게 된다. 초기에는 여성성 정체감이 남성중심적인 군대에서 진로나 직업정체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여군의 경우 여성성 정체감이 진로나 직업정체감에 부정적 영향만 주지는 않는다. 여군은 전투력보존을 위해 강인한 군인 됨이 요구되는 군대에서 남군만을 동일하게 모델링하기보다 오히려 자신 고유의 여성성의 긍정적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임무수행과 병력관리에서 남군과 다른 역량을 발휘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여군으로서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군인이 되는 전략을 갖게 된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도 남성과의 마찰과 충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진급이라는 보상으로 남녀평등이 현실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스스로 자부심과 특권인식을 갖게 될 때 성역할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반면 승급이 좌절될 경우 여전히 남성과의 마찰과 충돌로 인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 여군은 의미있는 관계 내에서 지지를 얻게 되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제공되어 스트레스 대처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유성경, 한영주, 조윤진, 2011; House, 1981), 주관적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Cohen & Will, 1995; 콕금주, 1995)고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인 여군만의 차이점은 가족들 모두의 협조와 헌신, 응원이 제공되어야 여군의 군생활이 유지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군이 갖게 되는 자부심과 특별의식과 같은 성취감은 개인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이므로 더 의미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여군의 군생활 적응과 성장을 이뤘던 성격강점과 삶의 의미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삶의 위기 사건과 같은 외상 경험이 부정적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잠재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거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Park, Helgeson, 2006). 또한 삶의 의미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 성장을 돕고 역경에 대한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심리적인 대처 자원으로 삶의 의미에 주목하였다(최승미, 2008; Helgeson, Reynolds, & Tomich, 2006).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위기 사건을 경험한 후에 새롭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Folkman, 1997; Tedeschi & Calhoun, 2004). 이처럼 삶의 의미는 외상의 고통 이후 건강한 기능을 회복하도록 촉진하는 강력한 대처 전략이 되며,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고(김보라, 신희천, 2010; 송현, 이영순, 2011; 신선영, 2009; 하정혜, 김지현, 2016; Linely & Joseph, 2004), 긍정적 태도와 관련된 과정적인 심리적

요소가 될 수 있다(김보라, 신희천, 2010; Ryff & Keys, 1995). 본 연구의 참여자인 여군은 자신들이 가장 잘 한다고 믿는 인내와 도전정신, 용기, 창의성, 학구열, 호기심과 탐구심 등의 인지적 강점들과 긍정적 특질을 심리적 대처 자원으로 활용하여 여느 직업보다 극한 경험들과 위기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결국 성장으로 이끌어 낸다. 이것은 ‘사람은 경험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현명해 진다’는 영국작가 제임스 보즈웰의 명언처럼 여군의 군생활 경험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군이 경험을 수용하는 태도와 여군이 가진 긍정적인 특성에 집중하게 한다. 즉, 긍정적 특성과 태도 등을 도울 수 있는 심리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여군 참여자는 군생활을 더욱 의미로운 일로 인식해 나가며, 일반직장인과 달리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관과 국가관을 고취시키면서 공공의 목표 추구라는 의미와 가치를 상기시키며 여군만의 독특한 직업성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직업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직업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 직업에 대한 헌신, 자부심, 사명감이라고 하였고, 직업정체성에 의해 초래되는 다양한 결과가 삶의 목적, 심리적 안녕감, 직업의 지속의도 등이라고 하였다(유홍준, 유대용, 정태인, 배성호, 조아름, 2014). 본 연구의 여군은 개인의 이득과 회사의 이득이 아닌 나라와 조국을 위한 헌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가진 군인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통해 삶의 목적과 심리적 안녕감은 물론 군대가 삶의 과정이자 전체라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일반사회의 직업정체성 확립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상담실제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군대의 폐쇄된 조직 특성상 경험 노출이 제한적이었던 여군들이 포커스 그룹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스스로 개인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문제해결 방식을 연구자가 아닌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찾아간 것에 의의가 있고, 이점이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군대 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의 효율성을 검토한 계기가 되었다. 향후 군대 내 간부를 위한 교육 및 워크샵에서 FGI를 활용한다면 간부들이 집단상담에서 갖는 자기개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 해결적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대표적인 남성 집단인 군대에 속한 소수로서의 여군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 적응하고 성장하는지 그 특별한 경험의 과정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주제를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군의 실제적인 진로발달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여군의 군생활 적응과 군인으로서의 성장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개입을 도울 수 있다.

셋째, 여군이 소수집단의 직업 적응과정이라는 주제 측면에서 볼 때 이공계 여대생이나 여성의 진로발달과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여군의 직업 적응과정 탐색은 진로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여군이 환경적·물리적으로 제한되는 적응의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심리적 성숙을 이끌어 내는지 적응과 관

련된 심리적 기제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여군의 군생활 적응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지원체계를 과정 및 단계별로 마련할 수 있다.

넷째, 상담과정에서 여군이 군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여 군인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자원이 관계 안에서의 인정과 자부심, 긍정적인 내적 특성, 삶의 의미라는 경험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자원들을 상담과정에 활용하여 여군의 군생활 초기에 관계적지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내·외적 성장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적극 강화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여군의 전반적인 군생활 경험, 적응 과정에 대한 전체적 탐색을 통해 여군의 군생활 적응을 조기에 돕기 위한 상담 및 교육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여군이 부대 전입전이나 훈련기간에 미리 여군의 군생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간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측하고, 해결 방법도 모색하여 적응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여군을 상담하는 상담자에게 여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상담적 가치가 있다. 여군의 적응 과정이 소수집단의 정체성 발달과정인 혼란과 저항, 자기성찰과 통합적 인식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경험적 자료를 확인하였으므로 상담자가 여군을 상담하기에 앞서서 다문화적 관점에서 소수집단의 정체성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선행할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대라는 폐쇄적 특성으로 인해 여군 대상자 선정과 접근이 제한점으로 작용하여 참여자를 육군으로 한정하였고,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대상만 그룹으로 구성하였기에 계급과 직책, 보직 및 재직기간, 나이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었다. 인구학적 특성이 다르므로 인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한 그룹의 참여자 수를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최소 4-6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3그룹 중 한 그룹의 경우 초기에 4명으로 구성하였으나 군대의 비상 훈련이라는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한명이 인터뷰 당일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참여자들을 고려하여 3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셋째, 시기와 세대별 통제에 대한 부분이다. 참여자들이 입대한 시기가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다양하다. 군대는 전통적으로 남성중심문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병영문화혁신이라는 정책하에 환경적·정책적·제도적 변화를 시도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군대문화의 변화를 일부 가져왔기 때문에 여군들의 경험 또한 과거와 현재가 다르게 경험되는 부분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원시기별, 세대별로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자에 대한 것이다. 연구자가 군대에 속해 있는 내부자이면서 군인이 아닌 외부자적 시점에서 인터뷰를 하고 해석하고 분석이 되었다. 의미 단어 요약과 주제 선정에서 최대한 여군 참여자들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자의 편견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후속 연구

에서는 여군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 대상을 육군, 공군, 해군 모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 선정 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참여 인원수를 충분히 선정, 섭외하는 것이 필요하고, 포커스 그룹수도 최소 3개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대상과 방법을 보완하고 제한점을 고려하여 여군의 군생활 경험과 적용 과정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여군의 군생활 적응 한계로 남아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 여군의 군생활 적응과 심리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 군대 내 당면한 상황을 인식하고 새로운 군대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여군을 위한 환경적·정책적·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곽금주 (1995). KLSSA 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 5-16.
- 국방부 (2020). 국방백서.
- 김경순 (2011).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여성: 국방환경의 변화와 여군의 역할 확대. 민족연구, 45, 113-137.
- 김나리 (2010). 남성지배 학과 여대생과 여성지배 학과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갈등과 진로 정체감 및 진로 결정수준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원 (2007). 한국 여군증가의 효과성 분석: 기능적, 문화적, 보상적 효과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3(3), 169-197.
- 김보라, 신희천 (2010).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17-136.
- 김영은, 한지영, 오명숙 (2013). 성별에 따른 공과대학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개발 단계의 특징 분석. *공학교육연구*, 16(6), 19-28.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서울: 문음사.
- 김영천, 허창수 (2004). 생애사 텍스트로서의 교육과정연구. *교육과정연구*, 22(4), 49-81.
- 김엘리 (2012). 여군의 출현과 그 의미. *아시아저널*, 6(2012), 43-65.
- 김지경 (2002). 성차별 경험이 여성의 사회적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8). 여성성역할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4), 1-22.
- 류영숙 (2002). 여성장교의 경험으로 본 한국군대의 젠더정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근영, 서영석 (2011). 여성 직장인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일 몰입의 관계: 내면화와 신체감시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555-571.
- 삼성경제연구소 (2010). *대한민국 워킹맘 실태 보고서*.
- 서민교 (2007). 사회적 지지가 기혼여군의 자녀 양육 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령, 김계현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15-427.
- 손정민 (2012).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인식이 육군 여군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복무구분의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진 (2014). 여군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군사발전연구*, 8(1), 91-113.
- 송병주, 김태숙 (2010). 여군인력 확대의 효과에 관한 인식 조사. *경남지역연구*, 13.
- 송현, 이영순 (2011). 심리적 강인성과 정서지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4), 1231-1246.
- 신선영 (2009).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한영주, 조윤진 (2011). 기혼 직장 여성의 개인 특성 및 사회적 지지가 일가족 갈등 및 향상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6), 1955-1975.
- 유영란 (2014). 공학계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홍준, 유태용, 정태인, 배성호, 조아름 (2014). 직업정체성 척도개발과 직업정체성의 선행 및 결과변인들 간 관계 검증. *한국심리학회: 산업 및 조직*, 27(4), 617-642.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동훈 (2001). 군대문화의 남성중심성과 양성평등교육.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 (2005). 한국의 군대 생활과 남성 주체 형성. *현상과 인식*, 가을호, 81-108.
- 전지은 (2012). 남녀공학 이학계열 여성 대학원생의 젠더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아 (2001). 차별의 심리적 기제로서의 성 고정관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69-85.
- 정계룡 (2018). 여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론. *한국군사학논집*, 74(2), 115-138.
- 정금나 (1999). 고용에서의 성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원 (2012). 조직의 젠더구조와 여성관리자의 조직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혜진 (2008). 공대 여학생 사례를 통해 본 소수자의 사회심리학적 경험. *지방시대* 11(3), 32.
- 최승미 (2008).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정혜, 김지현 (2016).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 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023-1046.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 Bursik, K. (1991). Adaptation to divorce and ego development in adul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2), 300-306.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iedrick, P. (1991). Gender differences in 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4, 33-46.
- Dunivin, K. O. (1994). Military culture: Change and continuity, *Armed Forces & Society*, 20(4), Summer, 531-547.
- Gillespie, B. L., & Eisler, R. M. (1992). Development of the feminine gender role stress scale a cognitive-behavioral measure of stress, appraisal, and coping for women. *Behavior Modification*, 16(3), 426-438.
- Gottfredson, L. S. (2002).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nd self-creation In D. Brown & As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 85-148. San Francisco: Jossey-Bass.
- Helgeson, V. S. (2002). *The psychology of gender*. NJ: Prentice Hall.
- Helgeson, V. S., Reynolds, K. A., & Tomich, P. L. (2006). A meta-analytic review of benefit finding and grow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797-816.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Kilmartin, C. T. (2009). *우리 안의 남성: 남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지현, 김현순, 조중신, 최희철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에 출판).
- Katzenstein M. F. & Reppy J. (1999). *Beyond Zero Tolerance: Discrimination in Military Culture*, Maryland: Row man & Little field Publishers, INC.

- Krueger, R. A., & Casey, M. A. (2014).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4th)*. Thousand Oaks, CA: Sage. 포커스그룹: 응용조사 실행방법 (민병오, 조대현 공역). 서울: 명인문화사. (원전은 2009에 출판).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3rd)*.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Lewis, D. M., & Cachelin, F. M. (2001). Body image, Body dissatisfaction, and eating attitudes in midlife and elderly women. *Eating Disorders*, 9, 29-39.
- Linel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 11-21.
- Morgan, D. I.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 Focus Group Kit I*. SAGE Publication: CA.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us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56-469.
- O'Neil, J. M. (1981).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203-210.
- Park, C. L., & Folkman, S. (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2), 115-144.
- Park, C. L., & Helgeson, V. S. (200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Growth following highly stressful life events-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791-796.
- Pleck, J. H. (1981). *The myth of masculinity*. MA: MIT Press.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Sharf, R. S. (2002).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J. A. (1975). Rating of self and peers on sex-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and concept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1), 29-39.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1-18.
- Van-manen, M. (2015).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an action sensitive pedagogy*. Left Coast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20. 06. 29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9. 08

계 재 결 정 일 : 2020. 10. 27

## **The Military Life Experiences and Adaptation Process of Female Soldiers**

**Jae Eun Kim**

Seoul City Hall Healing Cente

**Ji Hyeon Kim**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n in-depth investigation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critical themes associated with the experiences and adaptation process of female soldiers. Twelve female soldiers, divided into three groups, were selected to participate in focus groups. The interviews primarily covered the soldiers' struggles in coping with military life experiences, and the process of adaptation and growth. The four themes related to military life experiences that emerged were: alienation as a minority group, difficulties related to physical differences, fixed gender roles, and barriers to performing duties. The four themes related to the adaptation process were: becoming a soldier not a female soldier, recognition within the relationship, moving forward to internal and external growth, and accepting and integrating into the process of life. These soldiers grew internally and externally by overcoming difficulties in the military and integrating their identities as soldiers as a value in their lives.

*Key words : female soldier, adaptation process, gender role stereotype, focus group interview*